



조유이 JO YUI

UI/UX Designer

“ 개발을 이해하는 디자이너,
조유이(UI)입니다. ”

Email

yuimuicolor@gmail.com

Phone

(+82) 010-2250-0062

Add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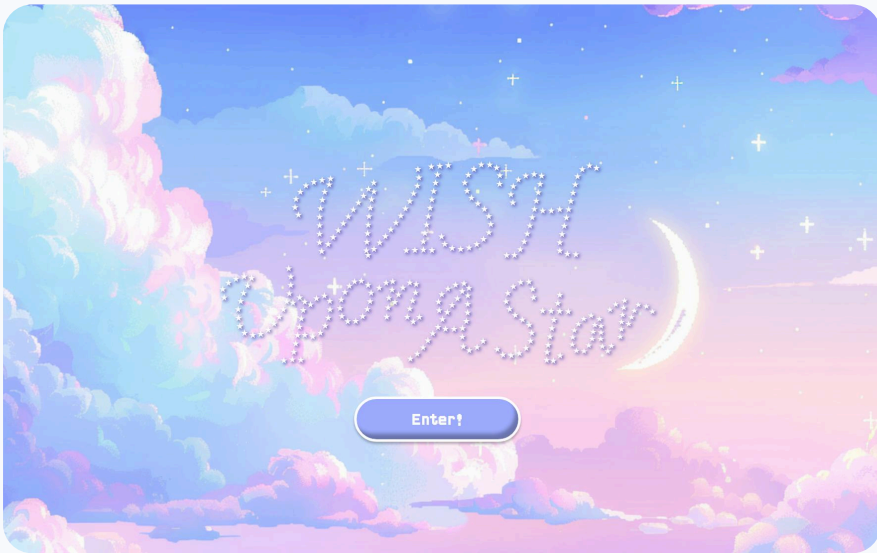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홍대입구역)

Languages

일본어
JLPT N2급 보유

영어
원어민과 일상회화 가능

Personal Project



Wish Upon A Star

- NCT WISH 팬 아카이빙 웹사이트

[기여도 100%]

- 기획 / 디자인 / 퍼블리싱 / 개발 / 배포

<https://wish-for-our-wish.vercel.app/>

Experience



Frontend Developer
(주) 몽키소프트

2023.11 - 2025.02
 대한민국, 서울

한화 갤러리아 APP (iOS 담당 / XCode, Objective C)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기존 서비스 신규 디자인 적용

Coweats [생산자/구매자/작업자] APP (React)

- 신규 서비스 프론트 개발

오스텔사 치과 관리 APP (Flutter)

- 기존 JAVA 개발 네이티브 APP → Flutter 기반 하이브리드 APP으로 이식

CASS 맥주 이벤트 WEB (Vue.js)

- 신규 이벤트 웹 퍼블리싱 및 디자인, 일부 SI 모델 개발 참여

Education

승실대학교
영화예술학과 영화예술전공

2024년 졸업

스파르타코딩클럽
React Web 기반
Front-end 개발자 과정

2025

SeSAC 청년취업사관학교
Figma, AI 기반
UI/UX 디자이너 과정

2025

Skills



Design

Web
Design

App
Design

User
Experience

- Wireframing
- Prototyping
- Testing

Design
System



Development

HTML

CSS
J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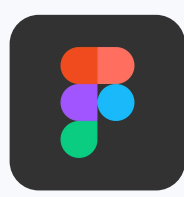
React JS

Objective C

Type
script

Vue.js

Tools



Figma
UI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Adobe Photoshop
그래픽/인쇄물 디자인
인물 보정



Adobe Illustrator
그래픽 디자인



Adobe Lightroom
사진 색감 보정



VS Code
코드 편집기



Xcode
iOS 기반 개발 도구



Notion
프로젝트 팀 협업



GitHub
협업 도구



Adobe Premiere Pro
동영상 편집

Introduce

전향이 아닌 전략, 개발자에서 디자이너로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AI와 업계 상황 속에서 '개발자만으로는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한계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고민 끝에, 저의 강점이자 차별화 포인트는 바로 [미적 감각과 창의력]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선 저는 영화예술학과 재학 시절, 미술부로서의 활동 끝에 단편영화 미술감독을 2차례 권유 받으며 인정받은 경험을 비롯해, 그래픽 · 의상 · 인쇄물 디자인, 공예 작업 등 다양한 시각적 창작을 꾸준히 이어오며 “감각이 뛰어나다”는 피드백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학창 시절부터 과학 창작 동화 대회 수상을 통한 발명·문학 영재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대학교 재학 당시에도 문예창작/영화예술학과외 전공 수업을 병행하며 시나리오, 기획 면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음과 동시에 교내외의 여러 팀 활동에서도 기획 아이디어가 자주 채택되며 창의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개인·팀 활동 전반에서 축적된 경험은 저의 강점을 뒷받침해주었고, 이를 기반으로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닌 [개발과 디자인을 모두 이해하는 기획자]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적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과감히 퇴사 후 본격적인 디자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낮선 언어에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감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앱의 iOS(Objective-C) 담당자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React 기반 웹 프론트엔드 경험만 있던 비전공자 신입이었기에 Objective-C는 처음 접해 보는 낯선 언어였으나, 사내 인원 부족 문제로 조연을 구할 사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117개 화면을 혼자 구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결해야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GPT 활용과 독학을 병행하며 Objective-C와 Xcode UI 구현 방식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화면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완성했고, 테스트 단계에서는 안드로이드보다 수정 사항이 현저히 적다는 피드백을 받으며 꼼꼼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당시에도 UI/UX에 대한 관심이 많아 디자인 가이드를 충실히 반영하려 노력했으며, 이 부분을 타사의 디자이너 겸 기획자 분께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본사에 전달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긍정 에너지, 무한 나눔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어디서든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평가 받고는 합니다.

입사 당시 “회사 내 분위기가 조용하고 여성 직원이 없는데 잘 적응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입사 후 두 달 만에 상사분께서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후 사실 파견 근무 인원 선정 시에도 현장 분위기를 고려해 저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퇴사 시에 전달 주셨으며, 이외 학창시절부터 이어진 다양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많은 분들로부터 밝은 성격과 친화력, 근무 태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 금방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함께 하는 사람이 좋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을 저는 다양한 집단에서 경험하였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동료들과 편안하게 의견을 나누고, 의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